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	2020. 2. 23. / (총 2매)	
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		정 경 실	044-202-2420
담 당 자		유 정 민	044-202-2404

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, 대구·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논의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(보건복지부 장관)은 2월 22일(토) 21시 대구·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논의하였고,
 - 의료계 간담회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◆ 대구·경북 의료계 단체장 참석자

<의료계 참석자>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, 장유석 경북의사회장, 고삼규 대구 경북 병원협회장, 정호영 경북대병원장, 민복기 대구의사회코로나대책반장
 <중앙사고수습본부 참석자>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, 이기일 관계 기관지원반장, 김현준 현장지원1반장 등

-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보고,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”고 하며,
 - “코로나19는 정부, 의료계, 국민이 대단합하여 지혜를 모으면,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- 또한, “어려운 상황에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드리며,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사회, 병원계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끝으로 “의료계에서도 대구·경북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”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.
- 대구·경북 의료계는 진단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 등 인력 부족 문제와 자가격리기준이 엄격하여 일정 조건(고글, 마스크, 장비, 에이프런 착용 등)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.
-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지금 전쟁 중 군인과 같으며,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.